

축 사

안녕하십니까 ? 반갑습니다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생일면 청년회 제9대·제10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갖게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뜨거운 애정과 사랑으로 생일면청년회를 이끌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신 최수한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듯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남다른 각오와 사명감으로 제10대 생일면 청년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김간용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신 신의준 도의원님, 완도군의회 우성자, 김양훈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사회단체장님과 내빈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생일면 청년회원 여러분!

청년회가 걸어온 자랑스러운 역사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보여주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는 다른 어느 일보다도 값지고 가치 있는 일로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의 무게에 너무 압도당하지 말고 거침없고 당당하게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취임하시는 김간용 회장님을 중심으로 회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면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보다 살기 좋은 완도 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언제나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단체로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생일면 청년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